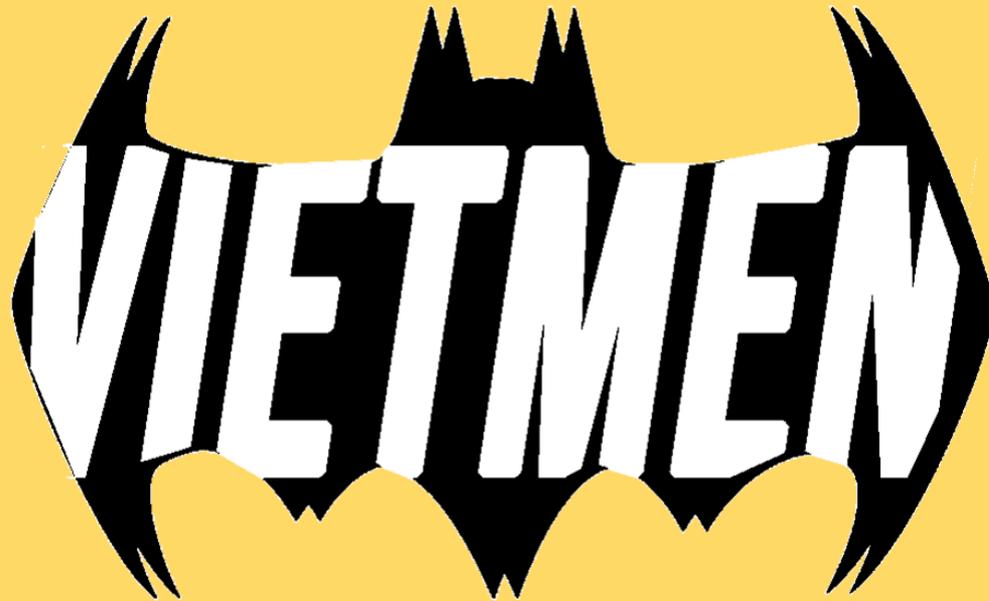


DECEMBER



1971 베트남팀

강예진 김나은 원민석 조은솔 최인혁

결심이 달려왔던 12월을 마무리하며.

Contents

1. 12월을 추억하며

2. 운영처럼 만난 소중한 그 사람

3. 우여곡절 끝의 ATTI Project

4. 우리 이제 이 정도 질문은 할 수 있잖아..?

5. 나, 너, 우리의 이세이

1-1 굿바이 | Thao Dan



2019. 12.14

Thao Dan기관에서 4개월간의 교육봉사를 마무리했다.

아이들과 헤어지기 전 굿바이 파티를 통해 마지막 추억을 쌓았다. 아이들과 함께 웃었던 기억들이 아직 선명하게 남아있다... VIETMEN은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아이들과 놀았다!

Thao Dan 측에서 굿바이 파티 음식을 준비해주셨다. 아이들과 맛있는 볶음밥을 나눠먹으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정말 많이 먹는 VIETMEN의 특성상, 볶음밥을 무한리필을 해주셔서 더욱 행복했다...!)



1-2 SEA 동남아시아컵 결승전! 베트남 VS 인도네시아



여기서 제일 신난 사람!

2019. 12. 10

베트남의 축구 사랑을 그대로 느껴볼 수 있었다. 거리는 열광의 도가니였으며, 호치민 시청 앞 거리는 베트남 국기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은 시민들로 가득했다...



1-2 SEA 동남아시아컵 결승전! 베트남 VS 인도네시아



특히나 호치민 시민들은 박항서 축구감독에게 열광했다. 박항서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시민들이 정말 많았다!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반갑게 인사해주는 시민들 덕에 더욱 쉽게 거리 응원에 녹아들 수 있었다.

1-2 SEA 동남아시아컵 결승전! 베트남 VS 인도네시아



버디인 Jannie와 Duc Anh이 함께해서 더 행복한 축구 응원이었다.
시민들과 하나되어 열심히 응원한 덕분이었을까..? 베트남이 승리했다!!!
그리고 우리는 온국민이 **오토바이 폭주**를 뛰는 진풍경을 보고야 말았다...!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정말...힘들었지만;;
베트남 팀이 승리하여 너무 기쁜 날이었다!!!



1-3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 with buddy

2019. 12. 24

버디 친구들과 함께한
세상에서 제일 따스했던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



**KOV's
Christmas Party**

- Date: 24.12.2019 (Tues), 18:00
- Location: YSD little house
- Main Menu: Pizza and Wine 🍷
- Get Ready: 1 present under 30,000d 📦
- Dress code: **RED**, just accessory is okay too :)

Main Party Planner였던 은솔과 Luca는
집을 꾸밀 크리스마스 파티용품들을 준비하여 집을 예쁘게 꾸며 주었다~
은솔짱짱걸은 우리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인화했고,
초대장을 만들어 버디에게 보냈다😊
(파티플래너로 진로를 고심해 보는 것을 추천~)
파티의 드레스 코드는 레드!
30000동 이하의 선물을 준비하여 선물 교환식도 진행했다!!

1-3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 with buddy

여자 단원들이 본격적인 파티를 기대하며 멋진 사진을 찍는 동안, 남자 단원들은 많이 지쳐 보이지만...?
인혁군과 민석군은 누구 보다 맛있게 음식을 먹었다. (인혁단원은 이날 피자 주문을 한다고 고생해 주었다ㅠㅠ 고마워!)



1-3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 with buddy



친구들과 함께 치킨, 피자를 나눠 먹으며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를 즐겼다 😊 루돌프 머리띠와 산타 모자는 파티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 주었다! 오랜만에 많은 버디들과 함께 모이고, 얘기를 나눌 수 있어 반가웠다 :)
잊지 못할 거야! 베트남에서의 크리스마스 이브 ♡



1-4 신년 맞이 불꽃축제



사진 속에서 인혁, 예진, 미아를 찾으시오.
(현상금: 만오천동-우리아줌마 반미사 먹을 수 있음)



2019. 12. 31
드디어 2020 새해가 밝기 하루 전!
호치민 시청 앞은 불꽃축제를 보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 ++
2019년 수고 많았고,
2020년은 더 재밌게 살자!!!

02

유명처럼 만난 소중한 그 사람

Lucaya~!



2-1 여진이이의 그 사람

알래스카의 해질녘



Ken 아저씨 저녁은 간단히 킹크랩!!



Mr. Ken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 저리가는! Mr. Ken 아저씨:)

키왕 파고다에서 장애아동돌봄 봉사를 하며 만난 인연이다. 장애아동의 휠체어를 함께 밀어주며 나눴던 이야기들이 내 가슴속에 인상깊게 남아있다. 대화를 할 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Ken 아저씨의 경험을 더 자세히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저씨는 알래스카에서 7년에 5개월을 일하신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봉사를 비롯하여 전세계를 돌며 소중한 인연을 찾아 다시 만나신다. 그래서 일까? 아저씨와는 꼭 다시 만나 친구로서 잘 지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 Ken 아저씨 덕분에 친구가 되는 것에는 나이가 중요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도 Ken아저씨와는 종종 이메일로 소식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그럴 때마다 알래스카의 멋진 풍경과 소소한 일상을 공유해주는 Ken아저씨 덕분에 알래스카라는 곳을 꼭 가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꼭 다시 만나요~ Ken 아저씨! (영어를 열심히 해야겠다 다시 한 번 더 다짐한다..!)

2-2 나으이의 그 사람



우리 사랑스러운 Phuoc

언제나 날 보면 문앞으로 나와 내 손을 잡고 가는 네가 참 좋아. 넌 때때로 나와 함께 놀다가 흥미를 잃으면 매정하게 다른 곳으로 떠나곤 하지만 그것 또한 너의 매력이란 걸 알게 되었어. 그래서 네가 오랫동안 내 품에서 떠나지 않고 행복한 미소를 보일 때면 큰 뿌듯함과 행복을 느껴. 네가 웅얼웅얼 무슨 말이라도 하는 것 같으면 너무 귀엽기도 하고 얼른 너랑 대화를 하고 싶다는 상상을 해.

어느날 아무 이유없이 힘든 날이 있었는데 너는 나를 보고 사랑을 가득 머금은 웃음을 지으며 내 품으로 달려와 와락 안아줬지. 그러곤 네가 내 어깨에 기대어 포옥 기댈 때면 난 힘든 것들을 싹 잊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은 기분이야.

하루하루 빠르게 커가는 너를 보면 신기할 때도 많아. 지금 처럼만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많은 사랑 받으며 자라길 바라! 너무너무 사랑해♥

Phuoc



2-3 민식이의 그 사람

승려 아이들

키왕파크다에서 하는 수업을 통해 이 친구들을 만났다. 승려 아이들이라고 해서 점잖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친해지고 보니까 장난도 잘 치고 개구쟁이들을 보는 것 같고 같이 있으면 언제나 웃음이 나오고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까지 내 이름을 많이 불러준 것도 처음이고 고맙다. 내가 기분이 풀해 있을 때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어느새 피식 웃고 있었다. 키왕에 좀 큰 수영장이 있는데 아이들처럼 한국가기전에 놀고 가야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사 끝내고 같이 들어가서 노니까 정말 재미있었다. 나도 애들처럼 아무 생각없이 장난치고 우리가 함께 놀 수 있음에 행복한 하루였다. 나의 친구들 잊지는 못할 것이다,,!



2-4 은솔이의 그 사람

Nuoc Mia 집 아주머니



← 이게 Nuoc Mia
(사탕수수 음료수)



성함은 CÔ Nắm, 키왕 앞 Nuoc Mia(사탕수수 음료수) 집 아주머니다.

베트남어로 젊은 여성을 뜻하는 CÔ와 숫자 5를 뜻하는 Nắm, 즉 아주머니의 성함은 다섯번째 딸이라는 뜻이다.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몇몇 옛 조상님들께서는 왜 자식 이름을 이렇게 대충 지으셨는지... 왜 그러셨나요!

매번 키왕에 갈 때마다 점심시간에 Nuoc Mia 한 잔 마시는 건 내 일상이 되었다. 언제나 친절하시다! 이전 씨익 웃으며 손가락으로 '9' 표시만 해도 한 잔을 가져다 주시고, 따로 말씀 드리지 않아도 빨대를 빼 주신다. 손님이 없어 시간이 나실 때면 내 옆에 오셔서 함께 수다를 떠다. 알아듣지 못하는 문장은 수첩에 적어 달라고 부탁드려 집에 돌아가 사전으로 찾아본 후 그 다음날 해당 문장에 대한 대답을 한다.

한국에 가기 전 작은 마음의 선물 하나라도 꼭 드리고 싶다!



↑
아주머니네 개가 얼마 전 새끼를 낳았다!

2-5 인력이의 그 사람

Best Friend Forever



나의 buddy mia

베트남에 처음 와서 만난 첫번째 현지 친구이다. 베트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 많이 알려주고 도움을 준 친구이다. 그리고 베트남어도 알려주었다. 한국어를 잘해 소통에 무리도 없다. 서로 장난을 좋아해 놀리기도 많이 놀렸지만 항상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 한번 안 하고 도움을 준 착한 베트남 친구이다. 덕분에 베트남에 잘 적응할 수 있었고 베트남 생활이 재미있었던 거 같다. 그리고 먼저 물어보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 축제가 열리니까 한번 가보라고 항상 먼저 알려준 점이 고마운 거 같다.

이제 곧 베트남을 떠나서 보진 못하겠지만 언젠가 한국에 놀러 올 때, 내가 베트남에 다시 올 때까지 계속 연락하고 싶은 친구이다.

항상 고마웠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03 우계농작물 끝의 ATTI Project



간지작살

너그냥작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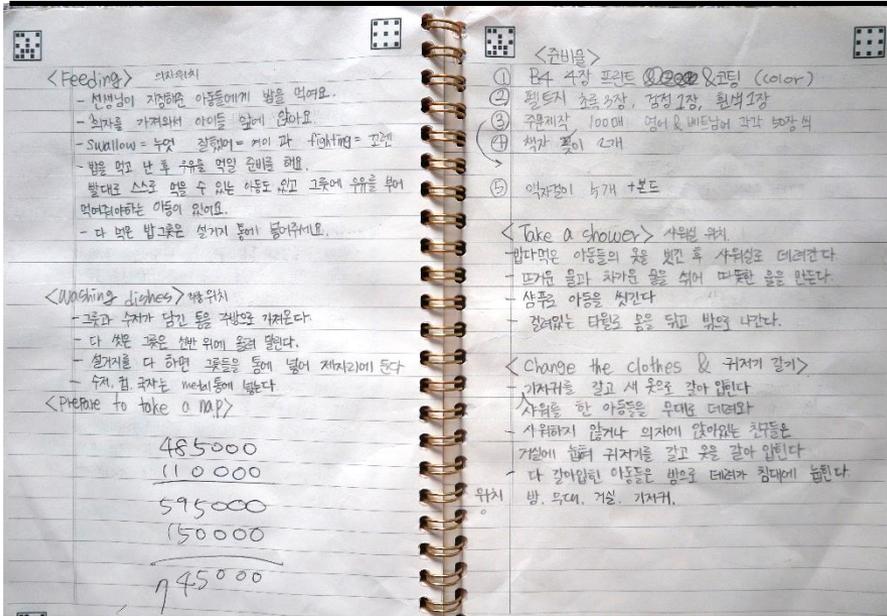
큐티작살

몽총이

바부탱

3-1 봉사자 매뉴얼 제작 과정

1. 카테고리 별 세부 내용 작성 (11/25 ~ 12/1)



3개월 동안 봉사한 경험을 토대로 아동 돌보기, 설거지, 밥 먹이기, 샤워하기, 물건 위치 등 세부 카테고리 나뉘 봉사자의 역할과 태도에 대해 작성했다.

2. 영어 & 베트남어 번역 / 사진 찍기 (12/20 ~ 12/22)

< CHO TRẺ ĂN >

- Nhân viên đưa ban trẻ nào thì hãy cứ tiếp tục cho trẻ đấy ăn, vì nhiều trẻ không chịu ăn bởi sợ người lạ.
- Lấy ghế và ngồi trước mặt trẻ.
- Nếu trẻ yêu cầu nhiều canh hơn hoặc trẻ không ăn được vì cơm khô, ban không nên tự ý thêm súp. Hãy hỏi các nhân viên rồi mới làm.
- Sau khi ăn thì cho các bé uống sữa. Có nhiều trẻ có thể từ uống sữa được, cũng có nhiều trẻ phải đổ sữa ra tỏ rồi mới uống được.
- Đặt tô đã ăn xong vào rổ đồ (rổ đựng đồ).

< RỬA CHÉN >

- Mang rổ đựng tô và muỗng vào phòng bếp.
- Đặt những đĩa/ tô đã rửa lên giá và phơi khô chúng.
- Khi đã rửa chén xong, đặt tô vào rổ đồ và đặt ở vị trí đúng.
- Đặt muỗng, li và vá mức canh vào rổ kim loại.
- Đặt những miếng khăn đã giặt vào vị trí cũ và treo yếm ăn của trẻ lên dây phơi.

< CHO TRẺ NGHỈ TRƯA >

- Lấy 5 chiếc giường từ phòng bếp của nhân viên và xếp các nệm sát nhau.
- Với những trẻ dùng giường thì giúp đặt trẻ lên giường.
- Mang nệm chân vào cho trẻ. Với những trẻ không thể giãn cơ chân ra được, giúp trẻ kéo giãn ra hết mức có thể.

< TẮM CHO TRẺ >

- Sau khi ăn cơm tối, cởi đồ cho trẻ và đặt trẻ vào phòng tắm.
- Pha nước nóng và lạnh với nhau để ra nước ấm.

팀원끼리 내용 공유를 한 후 한글로 작성한 파일을 바탕으로 버디의 도움을 받아 영어와 베트남어로 번역하는 동시에 물건 위치를 알려주기 위한 사진을 찍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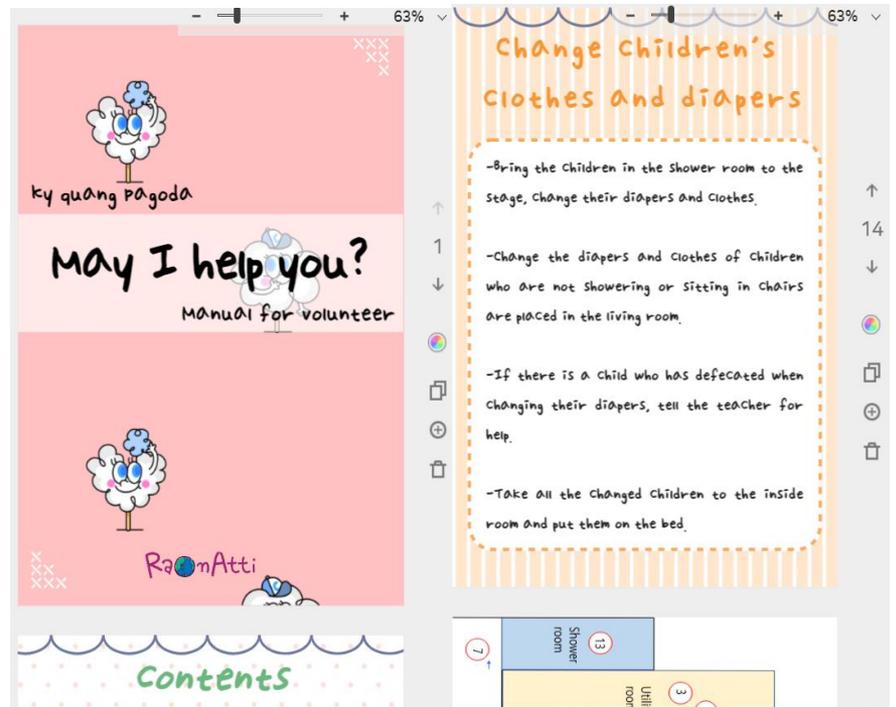
3-1 봉사자 매뉴얼 제작 과정

3. 망고보드 제작 시작 / 하루일과표 작성 (12/22 ~)



전체 내용을 수정하면서 망고보드에 옮겨 적었다. 또한 키왕 장애 아동 교실의 하루 일과표를 작성하였다.

4. 책자 디자인 / 하루 일과표 프린트 (~ 1/7)



May I help you라는 컨셉에 맞게 책자를 디자인하고 하루일과표를 작성하여 A5 사이즈로 프린트와 코팅을 했다.

3-1 봉사자 매뉴얼 제작 과정

5. 주문제작 / 하루일과표 꾸미기 (1/8 ~ 1/10)



완성된 책자 파일을 버디에게 넘겨 주문제작을 부탁하였다.

A5 사이즈로 영어와 베트남 버전 각각 10부와 책자 꽃이 2개를 주문하였다.

또한 아동 교실 분위기에 맞게 하루일과표를 개구리 모양으로 디자인 했다.

3-2 아동특성판 제작 진행과정

1. 이름, 성별, 특성이 담긴 관찰일지 작성

17	Vo	ma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장난감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요. 나는 베트남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나는 봉사자와 인사하는 걸 좋아해요. 다른 친구의 휠체어를 미는 걸 좋아해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I'm very interested in toy car I can understand Vietnamese I like to say hello to friend, so please say hello to me first! I feel fun when I push other friend's wheelchair 	<ol style="list-style-type: none"> Em thích những chiếc xe đồ chơi. Em có thể hiểu tiếng Việt. Em thích nói xin chào với bạn bè lắm nên hãy nói xin chào với em nha. Em thích đẩy xe lăn của bạn khác lắm.
18	Nguyen	fema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팔을 양옆으로 움직이길 좋아해요 하이파이브를 해준다면 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을 때 고개를 잡고 고정 시켜주세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I like to swing my arms from side to side. Your high five would make me feel happy. Please hold my head while I eat meal.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Em thích xoay cánh tay từ bên này sang bên kia lắm. 2. Nếu anh chi đập tay với em thì em sẽ rất vui. 3. Khi ăn thì anh chi hãy cố định đầu em lại nha.
19	Thang	ma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와 친구가 된다면 당신을 볼 때마다 웃을 거예요 나는 교실에서 인기쟁이예요. 많은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요 제 팔다리를 함부로 굽히지 마세요. 많이 아파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I will be smile for you whenever we meet if you be my good friend I'm a superstar in our class, many friends like me Don't bend my arms and legs carelessly. It hurts a lot.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Nếu mình là bạn tốt của nhau thì em sẽ luôn cười khi thấy anh chi. 2. Em là một người rất nổi bật trong lớp và nhiều bạn thích em lắm. 3. Đừng có tự ý gấp cánh tay hay chân em vì nó đau lắm.
20	Ca Chua	fema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난 아빠다리를 꼬고 앉는 걸 좋아해요 밥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제대로 먹이지 않는다면 밥을 거예요 내 옷을 다 갈아입힌 후 등을 토닥여주면 나는 혼자서 자리를 찾아가려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I usually sit crossed-legged on the chair. I don't like to eat meal. If you don't feed me well, I will spit out When you're done changing my clothes, please pat my back, then I'll find a seat on my own.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Em thích ngồi xếp bằng trên ghế lắm. 2. Em không thích ăn cho lắm. Nếu anh chi không đút em cẩn thận thì em sẽ phun ra. 3. Khi anh chi đã thay đồ cho em xong cứ vỗ lưng của em, em sẽ tự tìm đến ghế của mình.
21	Phuoc	ma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기분이 좋을 때 비비 소리를 내요 나는 종이나 비닐을 만지는 걸 좋아해요 당신이 나를 의자에 앉히고 밀어준다면 난 행복할 거예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I shout "BBI BBI" when I feel good. I like to touch paper and plastic bags. I'll be happy if you put me in a chair and push me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Em sẽ thường kêu "BBI BBI" khi thấy vui thấy thích. 2. Em thích chạm vào giấy và những chiếc bọc nhựa. 3. Em sẽ rất vui nếu anh chi đặt em lên ghế và đẩy em đi.
22	Lala	fema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손짓과 목소리로 알려줄게요 나는 밤에 잘 때 옆 신생아 교실에 가서 자요. 누군가 내 물건들 가져가면 화가나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If there's anything I want, I'll let you know by my gesture and voice. When I sleep at night, I go to the neonatal class next to sleep. I'm angry when someone takes my toy.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Nếu em thích cái gì, em sẽ cho anh chi biết bằng cử chỉ và giọng nói của em. 2. Khi em đi ngủ vào buổi tối, em sẽ sang phòng trẻ sơ sinh ngủ. 3. Em rất tức giận khi ai đó lấy đồ chơi của em.
23	Hung	ma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아주 가끔 당신과 아이컨택을 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할 거예요 나는 가끔 다리를 떨어요 나는 뒤집기를 잘 해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I will make you happy by doing eye contact with you very often. I sometimes shiver my legs. I'm good at flipping.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Em thường xuyên trao đổi ánh mắt với anh chi và làm anh chi thấy vui về. 2. Em thường thả chân em xuống. 3. Em rất giỏi lật người.
24	Nghe	ma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밥 먹을 때 많이 울어요 나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면서 보내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소리를 내어서 사인을 줄게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I cry a lot when I eat meal. I spend most of the day sleeping. I'll give you sign by making a noise when I'm sick and tire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Em sẽ khóc rất nhiều khi ăn cơm. 2. Em dành hầu hết thời gian trong ngày để ngủ. 3. Khi em bị bệnh hay mệt mỏi, em sẽ ra dấu cho anh chi thông qua việc tạo tiếng động.

3개월 간 키왕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 토대로 이름, 성별, 특성이 포함된 관찰일지 작성했다.

특성 파악이 어려운 아이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집중적으로 관찰하였으며 영어, 베트남어로 특성을 번역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 특징은 최대한 해당 아동을 돌볼 때 꼭 알아야 하는 점과 아이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담았다. (예시: 나를 안을 때 조심해주세요. 심장수술을 받았어요.)

3-2 아동특성판 제작 진행과정

2. 특성카드에 담길 사진 촬영

프로필 촬영인 만큼 아이들의 가장 예쁜 모습을 담고 싶었으나 쉽지 않았다. 결국 세번에 걸친 프로필 촬영을 하였다.

3개월간 아이들과 지내며 봉사만 하느라 바빠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을 기회로 모든 아이들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어 좋았다.

깔끔한 특성카드를 위해 배경을 지워내는 과정 또한 거쳤다.

Before



After



3-2 아동특성판 제작 진행과정

3. 특성카드 제작

망고보드와 PPT를 이용하여 베트남어와 영어로 된 특성카드를 제작했다.
(승철 감사님, 망고보드 감사합니다!)

프린트와 코팅 후 일정한 크기로 잘라냈다.
특성을 발견할 수 없는 아이들은 특성 없이 사진, 이름, 성별만 기입했다.

Ky Quang 2 Trẻ em Khuyết tật
Children with disable

Ca Rot (nũ, female)

- Em giỏi giao tiếp nên có thể nói chuyện với anh chị bằng tiếng Việt
- Em thật sự rất hăng say học tiếng Anh
- Em dùng xe lăn và nẹp chân khi đi bộ

- I'm good at communicating, so I can talk with you in Vietnamese
- I have a high academic zeal for English
- I use wheelchairs and leg braces when I take a walk

특성 O 아동 예시

Ky Quang 2 Trẻ em Khuyết tật
Children with disable

Thanh (nam, male)

Ky Quang 2 Trẻ em Khuyết tật
Children with disable

Tanh (nam, male)

특성 X 아동 예시



3-2 아동특성판 제작 진행과정

○○ 4. 특성판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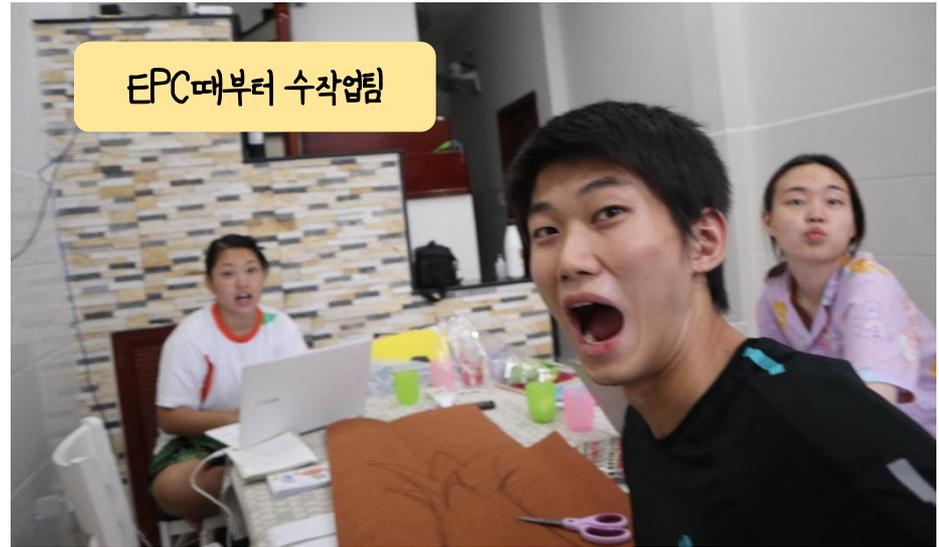
수작업 동물들

인혁, 예진이 로컬시장을 돌며 구해온 펠트지로 동물과 나무, 구름 등을 만들어 게시판을 꾸밀 예정이다. 은솔, 나은, 민석의 수작업이 들어갔다. 바쁜 일상 속 펠트지로 동물을 만드는 과정은 소소한 힐링이 되기도 했다! 이제 게시판에 부착하는 단계만 남겨두고 있다.

이세상에 우리가 만든 귀여운 동물들 못 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줍아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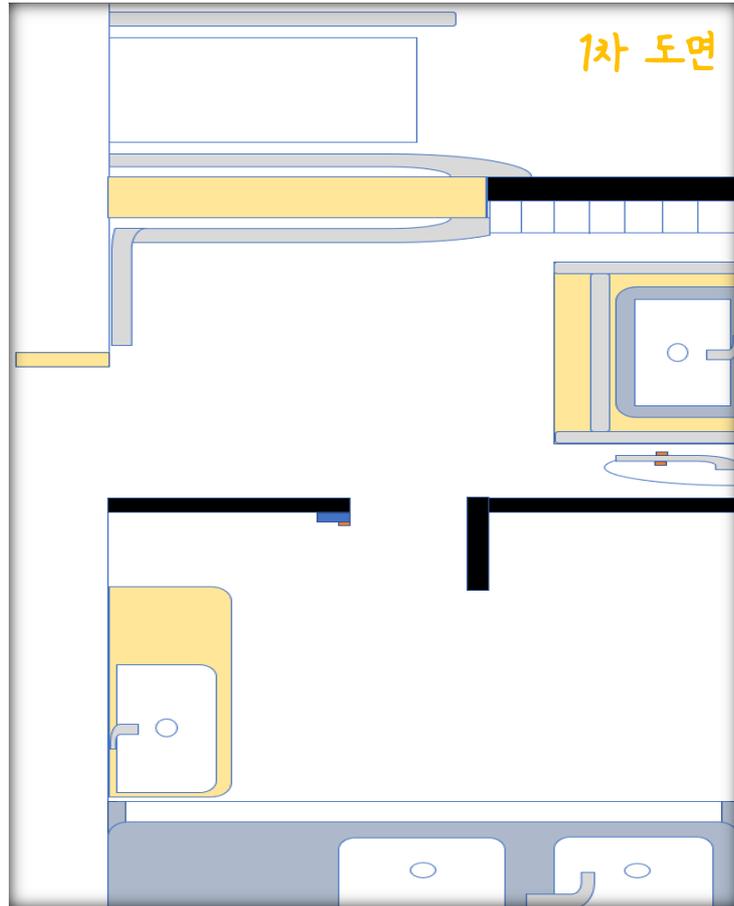
아동특성판 가이드 라인



EPC때부터 수작업팀

3-3 화장실 부엌 분리 공사

00 1. 도면 제작



00 # 드디어 시작인가...ㄸ

1. 화장실과 부엌 분리에 초점을 맞춘 만큼 두 공간 사이에 여닫이문을 만들거라 했다.
2. 기존에는 화장실에서 봉사자들이 설거지를 하였다. 공사 후 부엌 선생님용 싱크대 옆에 봉사자 싱크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화장실 공간을 분리하고자 했다.
3. 부엌의 선반은 봉사자, 현지 선생님이 함께 사용하도록 2칸으로 구성해보았다.
4. 화장실의 변기는 화변기를 좌변기로 교체하여 공간을 넓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5. 기존의 개수대를 아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받침대가 있는 세면대로 변경하고자 했다.
6. 아이들의 미끄럼 방지 및 다리가 불편한 친구들을 위해 봉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7. 용변을 볼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변기 앞 커튼을 가릴 수 있도록 커튼 설치를 희망했다.

3-3 화장실 부엌 분리 공사

00 2. 기자재 탐방



00 # 호치민 안 둘러본 곳이 없네?

- 전문가와 미팅을 하기 전 제작된 도면에 필요한 기자재들을 우리가 직접 찾아 가격 비교를 하고자 사전 조사를 5회 이상 진행했다.
 - 화장실의 경우 변기, 세면대, 샤워 호스, 수도꼭지를 알아보았다.
 - 부엌의 경우 수도꼭지, 싱크대, 선반을 알아보았다.
- 두 팀으로 나누어 현지 매장에 방문하였다. 조사한 가격과 디자인을 비교하였고, '공사 도면과 '기자재 비교 파일'을 만들어 전문가와의 미팅을 준비하였다.

3-3 화장실 부엌 분리 공사

00 3. 전문가와 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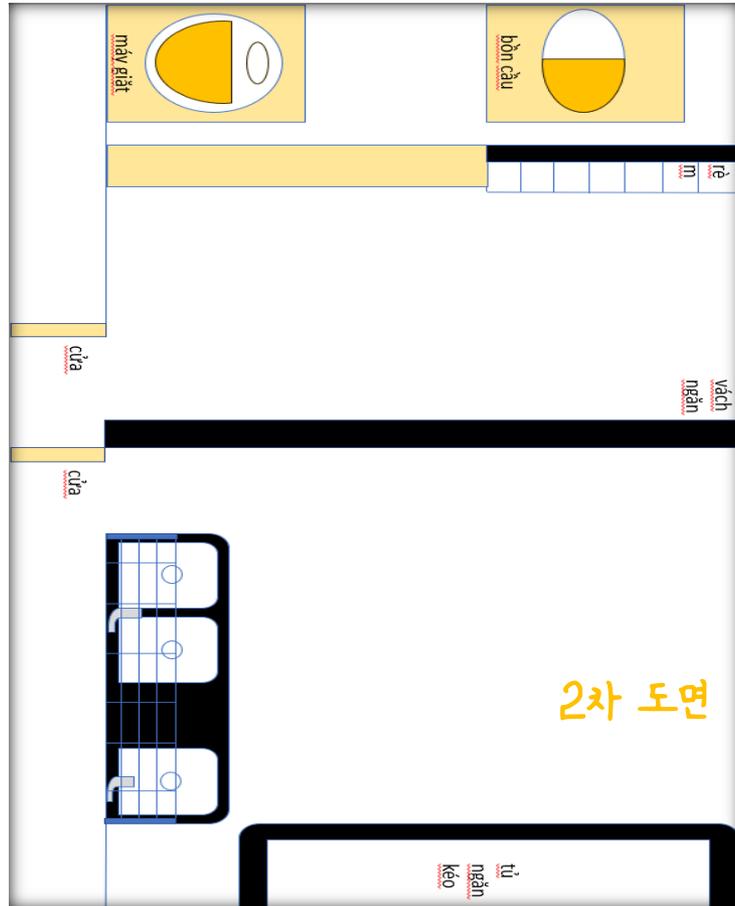


00 # 파고다 전속 디자이너 '킴어아'와의 만남!

- 우리의 공사 방향성 담은 도면과 기자재 파일을 키왕 파고다 담당자인 Mr. Hai에게 미리 전송하였다. 파고다 전속 디자이너를 만나 디자이너가 구상한 도면을 보며 VIETMEN측과 키왕측의 의견을 조율했다.
 - 1. 화장실의 경우, 화변기에 연결된 배관 시스템을 바꾸기 어렵고 아이들이 좌변기를 잘 사용해보지 않아서 기존의 것을 더 편해할 것이다. 때문에 변기의 위치와 모양을 바꾸지 말자.
 - 2. 개수대는 기존의 것을 두자. 사용 아동이 없기 때문에 세면대 설치는 불필요하다.
 - 3. 부엌의 경우, 싱크대를 추가로 설치하면 배관시스템을 건드리기 쉽지 않아 기존 싱크대를 봉사자와 선생님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교체하자.
 - 4. 싱크대와 별개로 수납장을 설치하여 부엌의 공간활용도를 높이자.
 - 5. 벽의 경우, 화장실과 부엌 각각 문이 있어서 큰 펜스를 이용해 벽을 세워 분리할 것을 추천하였다.
- 처음 VIETMEN의 계획과 달라진 부분이 많았다. 때문에 팀원간 재토의를 거쳤으며, 키왕 측의 요청 사항을 고려하여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계획을 재수정했다.

3-3 화장실 부엌 분리 공사

00 4. 도면 재수정



○○ # 도면 만들기 재밌다...

- 수정된 방향성과 계획을 바탕으로 도면을 재수정했다.

1. 화장실의 경우, 세면대 -> 개수대
2. 화변기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3. 부엌의 경우, 봉사자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쓸 수 있는 3개 홀이 있는 디자인의 싱크대로 변경한다.
4. 선반은 2층으로 선정하였고, 추가 수납공간을 설치한다.
5. 높은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화장실과 부엌 두 공간을 분리한다.
6. 화장실과 부엌 각각의 문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3-3 화장실 부엌 분리 공사

00 5. 중고 기자재 탐방



키왕 전속 디자이너
럽어이

○○ #럽어이와 중고나라 동행!

- 전문가와 재 미팅을 통해 수정된 도면 이야기를 나누고, 공사에 앞서 도면 합의를 마쳤다.
 - 페인트 작업 등 공사에서 VIETMEN팀의 적극적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전문가는 우리에게 공사의 일정부분을 맡기기로 약속했다.
 - 전문가가 보낸 예산 파일과 VIETMEN이 실시한 기자재 조사 결과를 비교한 후, 전문가와 함께 중고매장을 방문하여 더 좋은 가격의 선반과 싱크대를 알아보았다.
- 여러 중고매장에 간 후 중장 길이의 선반과 3개 홀이 있는 싱크대를 선정하였다.

3-3 화장실 부엌 분리 공사

00 6. 기존의 페인트 벽 제거



○○ # 공사 시작이다 >|<

- 기존의 페인트 벽을 제거하는 작업부터 하였다.
 - 끌개로 페인트 벽을 벗기기는 쉽지 않았고 잘 벗겨지지도 않아서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페인트를 부풀어 오르게 하여 조금이라도 더 잘 벗겼다.
- 화장실과 부엌 모든 벽의 낡은 손상된 페인트를 모두 벗겨냈다.

3-3 화장실 부엌 분리 공사

00 7. 벽 홈 메우기 + 약품 바르기



00 # 안전 제일 😊

- 기존의 페인트 벽을 벗겨내면서 벽이 파진 부분이 있어 홈을 메꾸어 평평하게 해주는 작업을 하였다.
- 그와 동시에 페인트 관련 약품을 바르는 작업도 추가로 하여 페인트 바르기 전 준비단계를 모두 마쳤다.

[잠깐! 예진의 소감 TIME]

작업시 높은 부분은 민석단원과 인혁단원이 많이 고생해주었다. 이 작업을 하면서 팀원들이 몸에 상처가 많이 늘었다. 공사가 쉽지 않음을 느낌과 동시에 더 이상 팀원이 다치지 않고 공사가 무사히 끝나기를 바랬던 것 같다. 화학약품이 몸에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도 최선을 다한 우리 팀원들이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ㅠㅠ

3-3 화장실 부엌 분리 공사

00 8. 흰색 페인트질 + 코팅



어메이징 고무장갑 스파이더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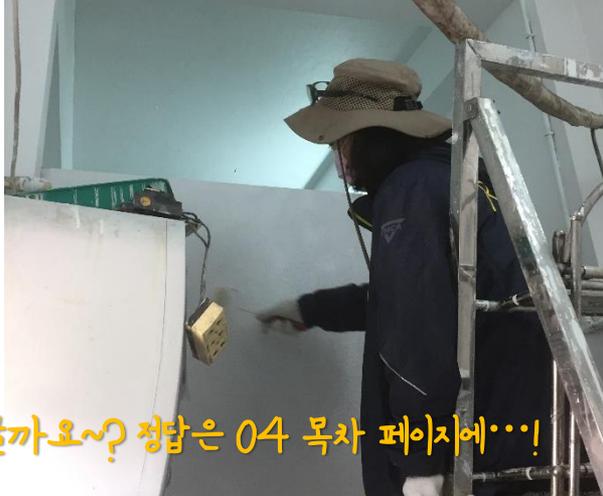
무념무상~ 벽을 깨끗하게~ 마음도 깨끗하게 :)

○○ # 산소 호흡기 필수 ☹️

- 페인트 바르기 전 작업을 마친 후 깨끗해진 벽에 흰색 페인트를 칠했다. 또한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거나 갈라지지 않도록 하는 약품을 섞어 화장실과 부엌에 칠했다.
- 천장까지 바르는 작업이라 더욱더 안전 조심!

3-3 화장실 부엌 분리 공사

○○ 9. 벽 펜스 + 선반, 싱크대 청소



누굴까요~? 정답은 04 목차 페이지에...!



초록초록한 녹 제거 작업

○○ # 공간 분리 완료@

- 화장실과 부엌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벽 펜스를 옮겨서, 벽과 벽 사이에 설치한다.
- 벽 펜스에도 페인트 칠과 코팅 작업 작업을 했다.
- 중고매장에서 사온 선반과 싱크대를 물청소하여 녹제거 작업을 했다. 땀별에서 땀 흘리며 깨끗하게 청소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3 화장실 부엌 분리 공사

00 10. 벽, 바닥 페인트 제거



거의 끝나간당 ★

- 화장실과 부엌을 분리한다.
- 화장실문과 별개로 숨겨진 부엌문을 보수하였다.
- 타일이 붙어있는 벽, 바닥에 튼 페인트 자국을 정리하기 위해 끌개로 다시 한번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3-3 화장실 부엌 분리 공사

00 11. 화장실 + 부엌 청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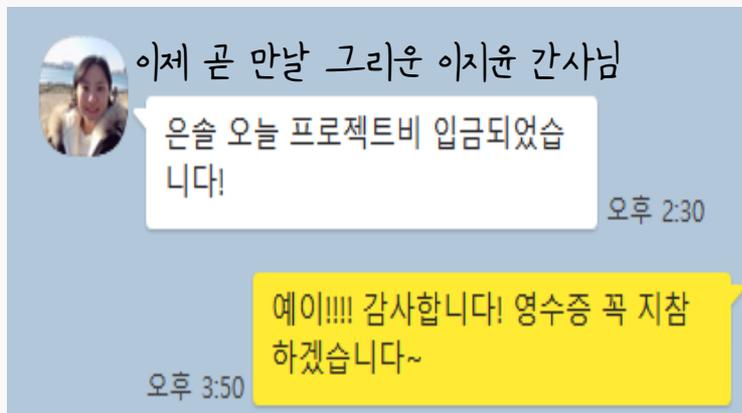
○○ # 깨끗하당~♡

- 화장실과 부엌 분리 공사는 끝났다.
- 마지막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화장실과 부엌 작업을 마무리한다.

Attī Project Special episode_ 드디어 돈이다!

[prologue]

우리 팀은 프로젝트비가 입금되기 전에 프로젝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생활 공금과 개인 여유가 되는 돈을 싹~ 다! 프로젝트비로 쓰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고달픈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아뵤 프로젝트비가 입금이 되었다고
간사님에게 카톡이 왔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프로젝트를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돈을 인출할 날만 기다렸다.

이제 돈 뵈으러 가즈아~!!!!

Attī Project Special episode_ 첫 번째 방법: ATM 기기



제발 돈이야 나와라 쿵자라쿵짜알랴샤바라따 호잇!!!



설레는 마음으로 간 신한은행 ATM,
하루 최대 인출 금액이 3,000,000+수수료(66,000)
하지만 우리가 뽑아야 하는 돈은 50,000,000 이상
이렇게 하면 수수료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한국 은행이어서 비싼 건가?' 싶어
베트남 은행ATM기에서 인출을 시도했었다.



하지만 베트남 은행도 마찬가지였다.
한국 은행 ATM기기와 같은 방식이었기 때문에 인출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음 날 버디와 함께
베트남에 있는 한국은행을 방문하고자 계획했다.

Atti Project Special episode. 두 번째 방법

: 한국은행 지점 방문(국민, 신한, 우리) with buddy Mia



신한은행 베트남



국민은행 베트남



우리은행 베트남

혹시나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버디와 같이 간 한국은행! 다행히도 한국인 직원들이 많이 계셨다.

그래서 이날은 꼭 돈을 뽑을 줄 알았다ㅠㅠ

하지만 위 3개의 은행을 다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뽑지 못했다...

Q. 왜 출금을 못했을까?

A: 한국 은행이어도 한국이랑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

한국계좌가 있어도 베트남계좌가 따로 있어야 인출이 가능했다..따쉬ㅠㅠ



Youth
Sustainable
Development

YSD의 국제계좌

-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던 우리 팀은 YSD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 YSD에 국제계좌가 있으니 여기로 돈을 송금하면 오래 걸리지만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답변이 왔다.
- 그래서 우리는 YSD 총장인 Mr. Danh의 국제계좌 정보를 받고 돈을 인출하려 했다.

Attī Project Special episode_ 네 번째 방법: Western Union

Western union: 누군가가 돈을 송취인의 이름으로 송금하면 수취인이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 즉시 돈을 받을 수 있는 송금 서비스 은행

원래는 YSD의 도움을 받아 돈을 인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오래 걸리기도 했고, 이미 각자의 돈, 공금을 끌어 모을 때로 끌어 모아 모두 사용한 우리는 시간과 돈이 없었기 때문에 더 빠른 방법인 western union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그 다음 날 바로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

드디어 각자의 돈을 돌려받고 본격적인 아띠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한다.

끝.

전담: 조지베이 조지베이

04

우리 이제 이 정도 질문은 할 수 있잖아..?

4-1번 타자 강예진 **신박한** 질문 받습니다.

질문 LIST!

1. 비밀 창고 치울 생각있어요?

없어요. Mr.얀에게 선물로
남길 거예요~! 저의 소중한
애완 머리카락 강진진과
함께 말이죠^^



3. 2PM 준호 VS 베트남팀 4명

베트남팀 4명이랄까요:) 후후...

(Gapjagi coga zaranda. Pinokkio cheoreom)

2. 평소 한국에서도 잘 씻지
않는다는데 최대한 안 씻은 날은?

무슨 소리니?

매일 씻고 있구만!!

너 최대한 안 맞아 봤구나..?

4. 초능력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어디로든 순식간에 갈 수 있는
능력을 원해요! 전 세계에 있는
소중한 제 인연들을 자주 만나고
싶거든요~!

4-2번 타자 김나은 기용찬 질문 받습니다.

1. Kiet이랑 무슨 사이인가요?

아무 사이 아님—
(정색, 짜증, 귀찮)

질문 LIST!



3. 집밥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한식이 너무 좋아ㅠㅠ 그냥 얼른
한국가서 집밥 먹고싶다는
생각뿐!

2.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더러운 멤버는?

질문한 바로 당신.

4. 어떻게 스스로를 더 사랑할
예정인가요? 그 방법과 이유!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싶은
것을 하다보면 자신을 점점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매일 일기를 쓰면서 나를
되돌아 보기!

4-3번 타자 원민씨 화끈한 질문 받습니다.

질문 LIST!

1. 본인이 생각하는 외모점수는?

질문자님보다 백퍼 높아요!

3. 타임머신이 있다면 언제로 돌아갈 것인가?

첫사랑을 찾았다

우리 뻘,,, 아들을 만난,
키왕 처음 간 날!!!



2. 이제 조은솔씨랑 어색하지 않나요?

당연합니다,,, 더 일찍 친해지지 못해 아쉽네요ㅠ

4. 기쁨을 즐겼던 방법, 슬픔, 분노, 우울을 어떻게 조절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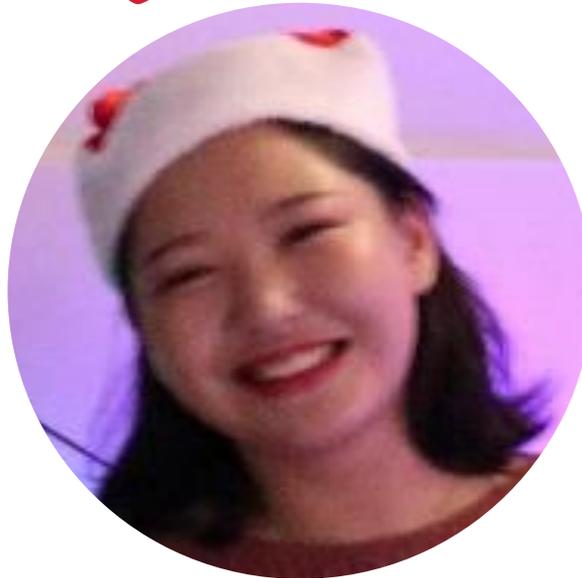
요리를 통해 기쁨을 얻었다. 음식을 만들고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 자주 가는 벤치에 앉자 멍 때리고 와서 안정되도록...

4-4번 타자 조은솔 **잉**한 질문 받습니다.

1. 내가 한 최고의 일탈은?

보고서에 담을 수가 없네요..ㅎ
누가 질문했는지 알 것 같으니
나중에 방에서 얘기하자 나은아.

질문 LIST!



3. 노트북 없이 살 수 있어요?

노트북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 없다면,
가족들이 내가 잘 지낸다는 걸 연락
없이도 알 수 있다면 없어도 됩니다.

2. 모든 활동에 주체적인 자세로 임했던
조은솔, 하지만 유독 '오라'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요똥을 극복하고 싶나요?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실 건가요?

저는 이미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염전지옥에서 온 순두부찌개 한 번 더
드시고 싶나요? 말만 하세요.

4. 팀원 중에서 가장 짜증나는 멤버는? (이유도)

이 질문 주인공은 너야 너~ 너야 너~

4-5번 타자 최인혁 **예외징한** 질문 받습니다.

1. 국내훈련 때 해준다고했던 김치찌개 어떻게 된거죠?

한국에서 백채 사줄게
미안하다... 마늘 까기가
너무 귀찮아ㅎㅎ

질문 LIST!



2. 베트남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템 3가지(사람도 됨)

1. 선크림
2. 모기약
3. 벌레 나오면 죽일 수 있는 무언가

3. 한국에서 가장 하고 싶은것 (먹고 싶은 것) 세가지를 말해주세요.(누구와 함께?)

국내여행
콩나물불고기
샤브샤브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

4. 빨래 왜 안해요?

빨래 세탁기가 한다.



05 나. 너. 우리의 이세계



베트남 호치민은 나의 제2의 고향

참 많이도 익숙해졌다. 다섯 명이 지지고 볶으며 사는 것, 신호를 지키지 않는 수백 대의 오토바이가 다니는 길을 자연스레 건널 수 있게 된 것, 하루건너 하루 산책했던 동네의 호수 그리고 하루라도 안 먹으면 아쉬워 잠이 오지 않는 우리 아주머니의 반미... 모두 너무나 소중한 것 같고 싶지 않은 기억이 되었다. 아침다, 아직 베트남에 있지만 벌써 베트남이 그리운 것 같기도 하다.

감사할 것이 가득한 어머니로서의 6개월은 나를 또 한 번 성장시켰다. 내 불확실한 미래를 대신 걱정해주는 세상을 향해 '나 알아서 할게라며 큰소리 뽕뽕 치기는 해놓았지만 내심 초조해지고 있었던 내게 라온아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조금은 더 내려놓아도 된다는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다. 라온아미가 되기 전, 불확실함이라는 것은 두렵기만 했다. 그러지 않고자 노력했지만 정신 차려보면 스스로 남과 비교를 하며 조금씩 겁을 먹고 더 치중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는 법을 익혔고, 현재의 삶에서 한 발짝 떨어져 더 멋진 내일을 그려 볼 줄도 알게 되었다.

여진의 개인 에세이



Tran

여기에서 삶은 뭐하나 계획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었다. 준비하고 또 준비해도 언제나 사건사고가 일어났고 그 때마다 그것을 수습하고,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머릿속에 여러 번 되뇌는 동안 성장했던 것 같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닌가 보다 싶다가도, 그래서 도대체 성공은 언제인가 싶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맞닥뜨려도 호탕하게 웃어버리는 나를 발견했고, 그런 스스로가 꽤 자랑스러워졌다.

베트남 호치민에 다섯이 함께 살 수 있어서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내 인생에서 라온아띠로서의 6개월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음이 틀림없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며 걱정하기보다, 알 수 없는 내일을 즐겁게 받아드릴 준비를 마치고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스스로가 대견하고 뿌듯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그립고 보고 싶을 것 같다. 나 그리고 우리의 라온아띠...

(아~글 썼더니 배고파 우리 아줌마 반미 먹으러 갈 사람?!?!^^)

즐거운 친구, 아띠

키왕 봉사지에 한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단체로 봉사를 하러 왔다.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아 욕을 하거나 쓰레기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말이 안 나왔다. 너무 창피하고 눈살 찌푸려졌다. 심지어 어떤 교직원분은 우리에게 훈수를 두었다. 그들은 과자를 나눠주고, 아이들에게 춤을 보여주고, 색종이 접기를 하고, 목마를 태워주며 놀았다. 그렇게 이틀 간의 활동을 하고 거창한 일이라도 한 듯 원정대처럼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찍고 떠났다. 도대체 왜 온 것일까...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을 해보았을까?

Ngan

오랫동안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다. 돈으로 간식을 사주고 단기성으로 얼굴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감하는 것. 아이들에게 민폐만 안 끼치면 다행이다. 마지막날까지 아이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정다운 동네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



나은이의 개인 에세이

Ngan

안녕 2019, 안녕 2020

뽀뽀한 오토바이와 경적소리,
향 피우는 냄새, 신호등 없이 길
건너기, 동네에 돌아다니는
강아지들, 신나고
촌스럽기도한 노래가 이전
익숙하다. 일상이 되어버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쉽고 그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시간이
느리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감사한 요즘이다.



내 친구 럭키

2019년을 되돌아 보았을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는 라온아띠에 합격했을 때다. 라온아띠를 하면서 가진 처음 목표인 '나를 아는 것'에 대해 잘 달성했는지는 모르겠다. 4개월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봉사를 하며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느꼈다. 그 속에서 수많은 '나'를 볼 수 있었다. 확실한 건 난 좀 더 강인해졌다.

22살의 마지막과 시작을 베트남에서 보낼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 지금까지 잘 지내와준 나와 vietmen에게 고맙다.

2020년에는 나를 더 사랑하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벽

12월은 아미프로젝트의 달이었다. 화장실, 부엌 공사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벽을 부수고 페인트 바르고 코팅하고 벽 옮기고 청소하며 일만 하다 보니까 잡생각은 잘 들지 않아서 좋았다. 몸이 피곤하긴 했지만 작업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도 5명 함께 화장실과 부엌 보수를 하기 위해 힘쓰면서 어떻게든 함께하면 잘 할 수 있다는 것도 배울 수 있었다.

서로를 위해 내가 할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오그라들기도 했고 조금 감동도 했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기쁘다. 많은 아이가 있는 교실에서 화장실과 부엌을 분리하고 공사하는 작업이라 페인트 냄새, 벽 부수는 소리, 등등 공사하면서 났을 소리나 냄새때문에 힘들어했을 아이들을 보면 미안하다. 아이들 앞에서 기진맥진해 있어도 힘들어하는 거 아는지 웃는 얼굴로 먼저 다가와 같이 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다.

Rhoi

이제는 개인 아티스트



민석이의 개인 에세이

chúc mừng năm mới ><

해피 뉴이어를 베트남어로 꼭 멩남
머이로 불리는 것을 배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계속
외웠는데,,,이웃들에게 보면 인사하고
꼭 멩남 머이를 하니 되게 귀엽게
봐주시면서 환한 얼굴로 같이 죽 멩남
머이를 해주시는 것을 보며 가장
기쁨이었던 순간이었다. 내가 직접 그
나라 언어로 사람들과 기쁨을
공유한다는 것이 인상 깊었고
해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내 주변의
이웃들 모두가 행복한 한해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생겼다.

12월 31일 호치민 광장에 가서 새해를
맞이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카운트다운을 한 것 같지도
않지만 많은 사람과 2020년을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
베트남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도 베트남 친구들과 함께하여
보내는 것도 처음이라 뜻 깊었고 나의
스무 살을 보내는 한해라 더더욱
기억에 남을 것이다.
남은 라온아띠로 즐겁게

Khôi



Luca와 크리스마스 파티 용품을 산 후
Chinese temple에 들러 구경 ↑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따뜻하게 맞아
주셨던 사이공연합교회분들 ↑

잔잔한 일상

11월이 팀원들과 베트남을 즐긴 달이었다면 12월은 이곳 사람들과 함께 잔잔한 일상을 보낸 달이었다. 내가 다니는 거리와 음식점, 포장마차 등 일상생활 반경 내의 사람들이 그저 자주 마주치는 사람에서 소중한 인연으로 발전했다. 쌀국수집 아주머니께 받은 위로, 후띠우집 아주머니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린 치즈 케익, 직업군이라는 anh trung, 옆집 개 럭키, 마르따와 키왕 시스템에 대해 나눈 대화, 최고 동안이신 바나나튀김집 아주머니, 득안과 간 맛집, 이제서야 만난 교회사람들, Luca와 산 파티 용품, 가을이와 함께한 요리, 사탕수수집 아주머니와 나눈 사소한 대화들, 음식점에서 처음 뵈 분에게 밥을 얻어먹은 경험, 모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다.

Duc anh과 프로젝트
준비물 사는 겸 행아웃!



내가 사준 개껌을 먹는 럭키 ↓

민석, 나은, 인혁, 예진

감사하다. 너무나 당연한 존재이기에 소중한지 몰랐던 우리 팀원들. 민석이, 나은이, 인혁이, 예진이 네 명의 팀원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들은 사실 매우 귀중하고 특별하다. 아무 의미 없는 빈둥대는 하루인 것 같아도 팀원들과 나눈 대화들, 별 것 아닌 걸로 웃는 일상이 매순간 존재했다.

너무나 평범한 이 일상들이 라온아미가 끝나고 회상했을 때 얼마나 특별하게 느껴질지, 그리울지 아직은 모르지만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들은 다신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설거지나 샤워순서 정하기 가위바위보 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버스타는 것도, 프로젝트를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일하는 것도, 산책하는 것도 다 그리울 것이다.

요리의 즐거움

요리에 일체 관심이 없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인 줄만 알았다. 어디를 가나 요리는 다른 사람의 몫, 식전 세팅과 설거지는 나의 몫이었다. 양파를 어떻게 썰는지도, 기본적인 양념장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도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 알 턱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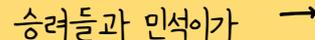
그러나 베트남에서 팀원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다 보니 이제는 요리의 재미를 알 것 같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푹딱 만드는 것도,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도, 내가 맛봐도 맛있는 것도 모두 신기하다. 한국 가면 가족들에게 꼭 요리를 해주고 싶다. 그리고 "맛있다 맛있다" 말해주며 격려해준 팀원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Thu

은슬이의 개인 에세이



술래잡기를 할 때면
내가 10초를 세는
동안 일부러 도망가지
않는 Len, 잡히는 걸
좋아한다.



승려들과 민석이가
함께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들어가고
싶다던 Thu, 넌
정말 사랑스럽단다!



인혁이의 개인 에세이

처음 베트남 생활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언제 12월이 되나 싶었지만 베트남 생활을 하다보니 벌써 12월이 되었고 한 해가 끝나가는 시점, 그리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날이 왔다. 가만 생각해보면 아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바빠져 같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여유로웠던 거 같다. 그리고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많이 쌓았던 달이기도 하고 놀러다니기도 많이 놀러다니고 베트남 문화를 많이 경험했던 거 같다.

12월 초에는 화장실 분리 공사를 위해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기자재를 알아보고 비교도 했었고 마침내 화장실 공사를 시작했던 거 같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과 달리 공사는 매우 어렵고 힘들고 위험했다. 벽을 긁어내는 작업, 그 과정속에서 직면한 어려움, 그리고 내가 아뎬프로젝트의 총무를 맡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상하지 못한 초과지출, 공사 중에 계속 액체가 몸에 묻어서 계속 다치는 상황 등 모두 힘들었던 거 같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계속 기분은 좋았던 거 같다. 오늘은 어떤 일을 했다는 성취감이었을까? 아니면 프로젝트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어 잘 하고 있다는 안도감이었을까? 아니면 뽀뽀할 거 같았던 생각과 달리 여유롭게 한 거 같은 느낌에서였을까? 어쩌면 3개 모두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앞서 말한 이유들이 생각이 들만큼 내가 그만큼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답변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계속 화장실 공사를 진행했다.

인혁이의 개인 에세이



12월 중반에는 계속 매일매일 키왕을 갔었다. 그리고 계속 공사를 진행했다. 매우 힘들었지만 해야 했기에 참고 했던 거 같다. 이 땐 공사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거의 마무리하는 때이고 동남아월드컵이 열려서 베트남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던 거 같다.

하지만 계속 공사를 하다가 느낀 것은 “조금 재밌다”였다. 처음엔 힘들었을지 몰라도 계속하다 보니 적응되고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어서였는지 몰라도 벽을 긁어내고 페인트 작업을 하는 게 재미있었다. 그리고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팀이 경기를 하는 날에는 우리도 버디친구들과 함께 거리에 나가서 열심히 응원했다.

시청 거리에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왔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응원하다가 옆에 사람도 목 터질 세라 크게 응원했는데 갑자기 눈이 마주쳐서 나한테 먼저 korea?라고 물어보셨고 내가 “yes, korea”답하고 같이 응원했다.

그리고 버디친구들과 스티커도 사서 붙이고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러 갔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오래 기다린 끝에 먹은 간식, 같이 응원했던 모든 순간이 잊지 못할 순간으로 기억된다. 아무리 다른 나라, 언어가 안 통해도 서로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면 잘 어울릴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깨달았다

Juan

to be continue

Final report



1971 베트남팀

강예진 김나은 원민석 조은솔 최인혁
